2025년 9월 15일 | Global Asset Research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미국, IT 섹터(반도체 업종 위주) 기반 실적 상향 지속 가운데 1년 선행 PER 22.8배로 사상 최고치

Micron: 메모리 반도체 수요, 특히 AI 데이터센터용 DRAM / 수요가 폭증 중. 특히 HBM3E / HBM4 제품의 양산 확대 예상 및 매출 기여 증가 전망. 마진 개선 및 가이던스도 강하게 제시

NVIDIA: AI 관련 제품 (데이터센터용 GPU, Blackwell 시리즈 등)의 수요 견고. 최근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높게 제시됨. 또한 AI 인프라 확장 및 고객사의 주문 증가

Broadcom: 최근 회계분기에서 AI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새로운 대형 고객(예: hyperscaler 기업) 확보 → AI 인프라 주문이 크게 증가. 전체 실적뿐 아니라 비AI 부문 회복 기대 및 매출 가이던스 상향 트렌드

Meta Platforms: 광고 비즈니스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고, 이용자수/DAU 증가, 광고 단가 개선 등의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 또한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이전보다 높게 제시함으로써 애널리스트 추정치도 올라가는 추세.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됨 -> 장기 성장 모멘텀이 더욱 강조

Adobe: 최근 분기 실적이 추정치를 상회했고, 구독 기반 매출 견고. AI 관련 제품(예: Firefly, Acrobat AI Assistant) 사용 확대 및 AI 연관 매출 유입이 가시화. 이로 인해 연간가이던스(매출 및 EPS)의 상향 조정

Sea: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쇼피)와 디지털 결제 등에서 사용자 및 거래량 증가, 시장 점유율 확장 기대. 특히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확대 트렌드 지속 및 물류, 간편결제 등 부문 개선 기대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자동차부품, 반도체및반도체장비, 컨테이너및포장, 소비자금융

Auto Components: Aftermarket 부품 수요 견조, 미국 경량차(light-duty vehicle)의 차량 대수가 증가 중이고, 운전자들이 차량을 오래 쓰면서 교체 부품 수요가 지속. 신규 트렌드: 전기차(EV),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 → 부품 설계 변화 + 공급망 확장이 필요.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 기대. 예컨대 인도의 auto components 산업이 2030년까지 거의 $200B 규모 예상. 다만, 관세(tariffs), 원자재 비용 상승 등의 부담 요인 있음. 일부 기업들은 이익률 압박 예상

Semiconductors & Semiconductor Equipment: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으로 DRAM, HBM, 미세공정, 장비 수요가 강세. 예: Micron 이 DRAM 가격 개선 + 가이던스 상향. 반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도체 공급망 리스크(지연, 품질, 수율 등) 완화됨: 백엔드 공정, 메트롤로지(metrology), 자동화 장비 수요도 함께 회복 중. 투자 확대: 정부 보조금 및 기업 CapEx 증가 → 신규 팹(pfab) 건설, 전 공정 투자 확대

Containers & Packaging: e-commerce, 식음료(F&B), 제약(PHARMA) 등에서 포장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온라인 소비 증가가 포장재 수요에 직접적 영향. 브랜드들의 친환경/지속가능 포장(sustainable packaging) 요구 증가 → 재활용 소재, 경량화 포장재 개발 등이 비용 절감 + 프리미엄 제품 기회 창출. 기업들이 원자재/운송비 상승 압력을 고객가격 인상(pass-through)이나 운영 효율 개선으로 대응. 예: Smurfit Westrock이 수익성이 낮은 고객 계약/생산설비를 정리

Consumer Finance: 소비자 신용건전성이 예상보다 좋고, 연체율이 과거 우려만큼 악화되지 않으며 소비 지출이 유지되는 중. 카드 소비, 소비자 대출(자동차 대출, 개인대출 등)의 원활한 성장 기대. 은행 및 핀테크 업체 실적에서 예상보다 나은 대출 증가과 순이자마진 개선, 비이자수익의 회복 또는 증가 조짐. JPMorgan, Wells Fargo 같은 대형 은행들이 분기 보고에서 소비자 금융의 건강성 강조

하향 업종은 항공, 호텔/레저, 무선통신서비스, 건축제품, 해운, 가스유틸리티

Airlines: 많은 항공사들이 국내 여객 수요 약화, 경제 불확실성 증가, 운임 하락 압력, 항공사 비용(특히 연료비, 인프라, 공급망 제약) 증가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실적 전망을 낮추고 있음

Hotels, Restaurants & Leisure: 매출 회복세는 있으나 비용 상승과 수요의 지역/부문별 불균형, RevPAR(객실당 수익) 감소, 그룹 vs 트랜지언트 수요 약화 등이 이익 측면에서 부담

Wireless Telecommunication Services: 성장 둔화, 경쟁 심화, 자본지출 부담, 고객 확보/유지 비용 증가, 서비스 품질/투자 효율성 저하 등이 겹치면서 이익 전망이 약화

Building Products / Marine / Gas Utilities: 지역/원자재 가격 + 운송비 + 노동비 상승 + 수요 둔화 요소. 특히 주택 시장 둔화 – 건축 허가, 신규 주택 건설 감소 – 이 건축 자재의 수요를 줄임. 마린은 해상 운송 비용, 연료비, 선박 인도 지연, 글로벌 무역 흐름 둔화 등 부담. 가스 유틸리티는 규제 요인,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 소비자 에너지 비용 제어 압력 등이 영향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인텔, 메이탄, 보잉, 로빈후드, 마이크론, SEA, 마이크론, 뉴몬트, 내셔널그리드, 브로드컴, 샤오미, 메타, 암페놀, 어도비, 콘스텔레이션에너지, 램리서치, 엔비디아, 알리바바, 스포티파이, 나이키, 지멘스, AMD, 앱러빈, 오라클, 크라운캐슬, 마라톤페트롤리엄 등

하향 주요 종목은 시놉시스, BYD, 로블록스, 토탈에너지스, 노보노디스크, GE베르노바, 트랜다이즘, 티모바일, 스트래티지, 알파벳, 브리스톨마이어스큅, 롤스로이스,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 프로그레시브 등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3Q25F YoY +9% 예상. **3Q25F OP**는 76.8조원 (1M -0.8%, 1W +0.4%). **2025E OP**는 284조원 (1M -0.8%, 1W +0.2%)으로 하향 심화. **3Q25F OP 상향 업종**은 호텔레저, 건강관리장비, 유틸리티, 상사, 지주회사, 택배, 조선, 방송엔터, 유통, 상호미디어. **하향 업종**은 건자재, 화장품, 디스플레이, 제약바이오, 전기장비, 항공, 기술하드웨어, 정유, 건설, 섬유의복, 2차전지, 철강, 음식료

3Q25F OP 상향 대형주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한화오션, SK스퀘어, 한국전력, LG화학, 삼성중공업, HD현대. 반면,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모비스, HMM, POSCO홀딩스, SK, 삼양식품, LG 하향

3Q25F OP 상향 주요 종목은 한온시스템, 비에이치아이, 이오테크닉스, 한화, 일진전기, SK스퀘어, 한솔케미칼, HD현대, SNT에너지, 미스토홀딩스, 엘앤에프, 한화생명, SK오션플랜트, SK가스, 코미코, 에스엘, JYP Ent., 포스코인터내셔널, LG에너지솔루션, GS리테일, S-Oil, 현대지에프홀딩스, LG화학, 한국전력, 실리콘투,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두산, 솔브레인

외국인은 대주주 조건 완화 기대 반영으로 강한 매수, 대형주, 배당주, 성장주에 매수 집중. 외국인 순매수는 코스피 +4.0조원, 코스닥 +1,900억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방산, 기계, 유틸리티, 가전, 반도체. **순매도 상위 업종**은 통신, 필수소비재, 내구소비재, 조선, 건자재

연기금은 코스닥 및 성장주에 베팅하며 지수보다는 알파 전략. 연기금 순매수는 코스피 680억원, 코스닥 +550억원.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반도체, 비철금속, 전기장비, 해운, 소프트웨어. **순매도 상위 업종**은 유틸리티, 통신, 항공, 철강, 건설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9.15일(월)

미국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 -

16일(화)

미국 소매판매, 수출입물가지수, 산업생산, 기업재고, 20년물 채권 입찰 / -

17일(수)

미국 주택착공건수, 원유재고, FOMC / -

18일(목)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 지수, 선행지수 / 페덱스

19일(금)

- / -

Quant Comment

미국의 AI 관련 투자 및 실적 전망치 상향 신규 싸이클 부각 중(브로드컴, 오라클, OpenAI 간). 원화 강세 정도보다 외인의 강한 매수세는 곧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기대감 베팅. 외인의 코스피에 강한 매수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은 잠재 매수 포지션 구축 불가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반응은 앞으로 더욱 민감해질 것,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및 배당최고세율 완화 등의 추가 조치 여부에 관심. 관세 협상 우려보다는 반도체 등의 국내 실적 반등으로 '실적 리비전'에 대한 신뢰도 상승 중, 내년 실적주에 대한 관심 + 주주환원이 한국의 핵심 드라이버 측면에서 고배당/저PER 집중 전략